

탄소포인트제, 절전효과 상당...

청주시, 참여인구 1만가구 넘어 ... 2012년 온실가스 849톤 감축

충북 청주시에서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인 탄소포인트제에 참여하는 가구가 늘어나고 있다.

청주시의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는 8월9일 기준 1만300가구로 2009년 1850가구를 시작으로 2010년 4100가구, 2011년 8200가구, 2012년 9000가구로 증가했고 2013년 1300가구가 신규 가입하는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탄소포인트제는 가정, 상업시설, 학교, 유치원 등에서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을 통해 감축한 온실가스 양을 포인트로 환산해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이다.

2년간 월평균 사용량을 기준으로 반기별 전기를 5-10% 줄이면 5000포인트, 10% 이상은 1만포인트를 부여하고 포인트당 2원씩 현금을 지원한다.

청주시는 2012년 탄소포인트제에 참여해 전기 사용량을 줄인 2359가구에 총 3900만원을 지원했고 온실가스로 환산하면 849톤, 소나무 16만9000그루를 심은 것과 맞먹는 효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청주시 관계자는 “탄소포인트제 가입을 확대하기 위해 2012년 5월부터 홍보물과 신청서를 세대별로 배부하는 등 홍보활동을 적극 펼치고 있다”며 “시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8/09>